

하버드대학 신입생교육기획위원회 최종 보고서

2009. 03. 02. (월) | 편집진

I. 서론.

신입생-첫해는 대학이 제공하는 학문적 세계로의 진입 시기이며, 학생의 사회적, 지적, 인격적 발달에 있어서도 중대한 시기란 점을 인식하여, 하버드 대학교는 1930년부터 신입생 전용 기숙사를 운영하고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2006-07년 하버드 학부 학장(Dean of Harvard College) Pilbeam과 신입생 담당 학장(Dean of Freshmen) Dingman은 "신입생-첫해-경험 기획위원회"(First-Year Experience Planning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본 기획위원회는 신입생-첫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입생-첫해-경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점들에 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학생들이 신입생 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하버드에서의 많은 기회들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최근의 학생들은 재능 및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는 과거의 학생들과 별 차이가 없는 듯 하다. 그러나 학생 각각이 지닌 사회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배경, 대학에서의 학업에 대한 준비도 등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학사연한 내내 격주로 전체 모임을 가졌다. 학생들의 설문조사, 학생집단 심층면접, 학내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신입생 및 대학원생 조교 심층면접 등은 본 위원회의 작업에 매우 가치 있는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였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하버드가 제공하는 신입생-첫해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결과는 무엇인가?',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하버드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가?', '하버드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결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배분에서 적절한 우선순위를 수립할 수 있는가?' 등이 그것이다.

하버드 대학이 신입생-첫해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달성하길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비판적 사고능력

-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개발
- 정확성과 품위를 갖춘 글쓰기 능력 개발
- 정확성과 품위를 갖춘 말하기 능력 개발
- 지적 호기심의 배양 및 존중하는 태도 함양
-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의 작업 탐색 및 참여

2. 자기 자신과의 관계

- 자율성 함양
- 목표 의식 및 방향 감각 향상
- 자아의 가치 검토 및 명료화

- 자신감 형성
- 건강관리
- 좌절 및 모호한 상황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개발
- 정직함 및 성실함 향상

3. 자신 밖의 세계와의 관계

- 상호의존성의 필요성 인식
- 다양한 사회에의 참여 및 존중
-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II. 본론.

위원회는 학생들의 삶을 4개의 주요 영역들로 구분하여 연구 결과를 정리했다: 학문적 경험, 기숙사 경험, 정규 교과 외 경험, 학교 내 사회적 경험이 그것이다. 하버드가 독특하게 제공하는 바를 강조하고, 무엇이 잘 작동하고, 무엇에 수정이 필요한지, 발전을 위해 하버드 학부대학이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영역을 구분하였다. 2009년도 졸업예정자의 86%가 하버드에서의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 '매우 만족' 혹은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 (평균 4.19, 5점 척도 기준).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신입생 기숙사 경험 (평균 4.03), 학문적 경험 (평균 3.91), 학교 내 사회적 경험 (3.76)의 순서로 전반적인 하버드에서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였다.

1. 학문적 경험

신입생의 출신 배경과 대학에서의 학업에 대한 준비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학문적 경험 양상이 달라진다. 신입생-첫해 동안 이수해야 할 필수교과목, 수강생 중 신입생 비율이 특히 높은 교과목, 전공결정시기에 나타나는 교과목 신청 유형에 따라 신입생-첫해의 학문적 경험을 평가하였다.

1) 신입생-첫해 커리큘럼

하버드 학부생들에게는 강좌선택의 자유도 보장되지만, 필수이수교과목도 부과되고 있다.

신입생들은 학기 시작 전 준비 기간(Opening Days)에 글쓰기, 수학, 외국어 등의 교과목에 대해 배치고사를 치른다. 그 결과에 따라 학사지도담당자(adviser)가 학생이 이수할 교과목을 추천하게 된다.

신입생-첫해 기간에 필수로 이수할 교과목은 '글쓰기'와 '외국어'이다. '글쓰기20'(Expository Writing 20) 과목을 한 학기 동안 이수하면 되는데, 어느 학기에 수강할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배치고사 성적이 기준 미달인 학생은 1학기에 '글쓰기10'(Expository Writing 10) 과목을 수강한 후 2학기에 '글쓰기20'을 단계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외국어 과목의 경우는 AP, SAT II, 하버드 배치고사 등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받지 못하면, 1,2학기 전 기간에 걸쳐 외국어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일정학점 이상의 핵심교양강좌수강이 졸업요건에 포함되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핵심교양강좌(Core courses)를 수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많은 학생들이 '신입생 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다. '신입생 세미나'는 소규모·주제중심 교과목으로서,

학부대학 소속 교수는 물론 하버드 대학교의 전체 교수진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1,2학기 모두에 제공된다. 학교 내부에서는 '신입생 세미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제공되는 강의수도 증가하고 있다(2005-06년 125개, 2006-07년 130개). 별도의 신입생 세미나 사무국(Freshman Seminar Office)이 존재하며, 이들의 노력으로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신입생 세미나'를 수강하는 것은 아니다. 2007년 기준으로 2,108명이 입학했는데 복수강좌 신청자를 포함하여 1,447명에게 '신입생 세미나' 수강이 허가되었고 1,187명이 실제로 수강하였다. 학문적 관심사가 맞지 않거나 시간표 일정이 맞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신입생 세미나'를 수강하지 못한 많은 신입생들은 교수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형 강의를 많이 개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대형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사회분석10'(Social Analysis 10), '생명과학1a'(Life Science 1a), '생명과학1b'(Life Science 1b)가 대표적이다.

학생들은 전공을 결정하지 않고 하버드 학부대학에 입학하며, 3학기까지 전공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전공탐색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여 '수학', '생명과학1a', '자연과학1' 등을 연속해서 수강한다. 이런 학생의 경우 여기에 외국어 교과목도 필수로 이수하게 되면 다른 과목의 탐색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렇듯 교과목 선택권을 상실한 학생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2) 학생들의 견해

입학이 허가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Admitted Student Questionnaire) 결과를 보면, 하버드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긴밀한 관계 형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하버드 입학에 포기하는 학생들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 하버드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신의 신입생-첫해-경험에서 '학문적 프로그램'이 우수했다고 평가한다. 학생의 학업 준비 정도(academic preparation)와 하버드 교육에 대한 학생의 기대에 따라 학문적 경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결과도 보인다.

학문적 경험에 대해 가장 일관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들 중 63%가 신입생 세미나를 수강했거나, 교수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들은 학문적 경험 전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강좌들을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들도 수강을 원했지만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입생 세미나의 학문적 만족도가 특히 높지만 글쓰기나 외국어 강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22%).

신입생-첫해-경험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낸 학생들이 제시하는 원인은, '교수와의 관계 형성 부족', '학문적 학사지도(academic advising)에 대한 실망', '몇몇 강좌들(글쓰기, 수학, 대형 자연과학 입문 강좌, 사회분석10)에 대한 불만족', '대학원생 강의조교(Teaching Fellow)(특히 영어 구사가 유창하지 못한)에 대한 불만족', '대형 강의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족', '동료들과의 학문적 경쟁' 등이다. 글쓰기에 대해서는 가장 만족스럽다는 평가와 가장 불만스럽다는 평가가 모두 나타나기도 했다.

교수진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학생들과, 대형 입문강의만 주로 수강한 학생들은 전반적인 학문경험에 대해 덜 안정적이고 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물론 모든 대형 강의를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불만은 대형 강의와 관련된다. 게다가, '생명과학1a', '생명과학1b', '화학7'을 수강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준비 정도가 급우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낀다. 위의 강의를 수강한 많은 학생들이 '학업상담부'(Bureau of Study Counsel)에 개인 또래 지도(individual peer tutoring)를 신청했다. 또래 지도를 많이 요구하는 강좌는 자연과학 분야 강의에만 국한된 것은 아

니며, 오히려 강좌에 신입생 수강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된다.

많은 학생들이 또래 지도를 원하는 현상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학생의 준비 정도가 부족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대형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얻기 어려운 일대일 관계를 구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이들 강좌들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수업-외-도움(out-of-class help)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화학에 대한 배경지식에 따라 '자연과학1' 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재미를 느끼고 도전해 보자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좌절감을 느끼는지)가 달라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2. 기숙사 경험

Harvard Yard에서의 생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하버드 신입생들은 신입생 기숙사에서 살아야 한다. 1학년 2학기 중반(3월)에는 상급 학년을 위한 거주시설(House)에 배정하는 추첨이 이루어진다. 이 때 배정되면 대개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1) 신입생 기숙사 배치, 주거생활 및 지도(Rooming/Housing/Advising in the Yard)

입학처(Admissions Office)가 제공하는 정보, 기숙사 담당 학장(Resident Dean)이 부탁하여 가족이 작성한 편지, Office of Accessible Education으로부터의 정보, 신입생이 작성한 방 배정 설문조사(rooming questionnaire) 결과 등,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고려하여 룸메이트 배정이 이루어진다. 함께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배경과 관심사가 다른 학생들끼리 잘 섞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방 배정의 핵심이다. 방 별 인원은 1-6명, 기숙사 구역 별(entryway) 인원은 20~40명 정도로 할당된다. 각 구역 별로 대학원생이거나 대학교의 staff 구성원인 기숙사 조교(proctor)가 지도 및 감독한다. 2006-07년도부터, 상급생들이 '학부생 또래 지도자'(peer advising fellow) 활동을 시작했다. 상급생들은 신입생과 기숙사 한 구역을 할당받아, 경험을 공유하고 적응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기숙사 조교는 신입생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이들은 학문적 조언자(academic adviser)로서의 역할도 한다. 기숙사 조교는 매주 있는 자율 학습(weekly study breaks)을 주관하고, 신입생들이 하버드 학칙과 정책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공동체 의식(담당구역과 기숙사 모두에서)을 고취하고, 룸메이트 간 다툼과 향수병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런 의무들은 그들이 맡은 학사지도 책임 항목들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 기숙사 조교는 봉사의 대가로 거주 공간과 식사를 제공받는다. 기숙사 조교로서 봉사하는 평균 기간은 3년이다.

신입생들은 신입생 식당(Annenberg)에서 다함께 식사를 하며, 기숙사 교육 프로그램(residential education program)에 참여한다. 기숙사 교육 프로그램은 의무 참여 프로그램과 선택 참여 프로그램 등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2) 학생들의 견해

기숙사 경험에 대해 2009년 졸업예정자의 77%가 만족이상의 답변을 하였다. 입학 허가 학생 설문조사에서도 "캠퍼스 내 거주 질(quality of campus housing)"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높아서 사생활 영유가 어려운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최근의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널찍한 개인적 공간이 있었기에 뻣뻣한 공간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룸메이트 배정은 상당히 성공적이긴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숙사 방 배정 특별고려위원회'(Rooming Exceptions Committee)의 신설은 룸메이트 간 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집단 결과로 볼 때, 기숙사 조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기숙사 조교 지원자들의 인력풀을 확장하고, 조교 지원자의 인터뷰 시 학생과 기존 기숙사 조교를 포함하는 최근의 노력들에, 조교 훈련의 개선이 합쳐지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학부생 또래 지도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잘 될 경우 신입생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Yard에서 신입생들끼리 첫해를 보내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지만, 학부대학에 적응하고 수업 성실도(class loyalty)를 높이기 위해 상급생과의 만남을 원하기도 한다.

룸메이트 등의 공동 생활자를 구성하는 일(Blocking)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다. 2008-09년 졸업예정자들의 38%가 '매우 스트레스가 된다', 혹은 '스트레스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기숙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린다. 의무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2010년 졸업예정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음주 워크숍 3.04, 성폭행 방지 및 대응 워크숍 3.29, 건강 워크숍 3.21(1점 매우불만-4점 매우만족).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시기, 메시지의 중복, 하나 이상의 의무 활동 추가와 관련해서 좌절감을 표실했다. 선택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의 참여에 변동이 많아서 제대로 된 정보제공자를 구하기 어렵지만, 많은 학생들로부터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그 시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정규교과 외 경험

하버드는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중시하기에, 정규교과 외적 기회에도 관심을 가진다. 학부대학의 교육이념에서 지향하고 있는 '좋은 학업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서로 협동하기', '개인의 행동에 책임감 갖기'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잘 대변한다. 정규교과 일정을 짤 때, 신입생들이 학생조직(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교수들은 오래 전부터 인식해왔다. 강의실 안에서의 활동과 밖에서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는 학생들이 전반적인 대학 경험에 대해 더욱 만족하기 때문이다.

전체 학생의 80%가 정규교과 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70%의 학생이 두 개 이상의 활동에 참여하며, 14%는 4-5개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 중 68%가 일주일에 6시간을 정규교과 외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며, 34%는 12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에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해당 학생들의 학점이 낮지 않았으며, 오히려 열심히 참여할수록 대학에서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1) Harvard Yard에서의 활동

신입생들은 입학이 허가되는 순간부터,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규교과 외 활동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학기 시작 전 준비 기간에 학부생 조직에 대한 전체소개 박람회가 열린다. 현재 380개의 학생조직들이 있는데, 특별한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가입이 되는 모임에서부터 시험이나 경쟁을 거쳐야 하는 모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2) 학생들의 견해

입학이 허가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하버드는 정규교과 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다른 대학들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입생-첫해를 마친 후의 설문조사에서 그 만족도는 4.0(5점 척도)으로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어떤 학생들은 사전-오리엔

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석함으로써 열정적 참여를 시작하게 된다. 설문조사에서, 신입생들은 매우 많은 활동이 있고 어느 것을 할지 고려할 수 있는 즐거움에 관해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전체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경쟁의 부담감’ 같은 것도 지적한다.

4. 학교 내 사회적 경험

1931년에 하버드가 독립된 “신입생-첫해-경험”을 Yard에서 시작할 때, Harvard Union은 학생회관 (social center)의 한 종류로서 설립되었다. 여기서 신입생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 만나고, 기숙사 조교, 기숙사 상주 학업지도자(resident instructors), 교수진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으며, 이는 그들의 학교 사회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1) 공간

1996년에 Freshman Union은 Humanities Center로 변경되었고, 신입생 식당(freshman dining)은 새롭게 재건축하고 있는 Annenberg Hall로 옮겨졌다. 한 장소에서 식사하는 것은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이동으로 인해 Union의 다른 방들이 손실되었다.

식사 외의 목적으로 식당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현재 하버드 학생들은 1931년의 신입생들보다 훨씬 더 높은 밀도 속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공동의 공간(common rooms)이 침실로 이용되고 있다. 당연히 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는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2) 공공 위락

학생들의 성향에도 변화가 있어왔다. 1960년대의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했다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선호하는 것이 최근 학생들의 경향이다. 그러나 공간, 예산, 담당인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3) 개인 위락

신입생들은 최근까지도 음주 등에 대한 대학의 엄격한 규칙 적용으로 인해 파티를 여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왔다. 신입생들이 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대학 측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신입생들의 음주 관련 필수 워크숍 참석 의무화, 기숙사 조교의 대처 권한 강화, 응급실 이용에 대한 오해 해소(예: 음주 때문에 의료 도움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음)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

4) 학생들의 견해

2009년도 졸업예정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하버드에서의 학교 내 사회적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적정 수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에서 3.76). 서술형 답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캠퍼스에서의 사회적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주된 방안들을 추출하였다: (1) 개인적인 파티를 더 많이 허용하는 것, (2) Yardfest 같은 캠퍼스 행사를 더 많이 주최하는 것, (3) 학생들의 사교적 회합 (social gatherings)을 위해 공동의 공간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 등이다.

5. 주요 권고 사항

1) 학문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학생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모든 변화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버드 학부대학장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2) 학생들이 하버드의 무수한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이 되도록 지원하는 데, '지도'(advising)가 중대한 역할을 한다. 즉, 교수진과 대학 내 여러 선배들의 조언의 질이 신입생-첫해-경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

3) 자연과학 입문 강좌들의 수준을 재평가하려는 최근의 노력은 바람직하다. 아울러 신입생들의 수준에 더 잘 맞는 강좌로 거듭날 것을 희망한다. 또한, 소규모 세미나 방식의 강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4) 신입생들이 특히 많이 듣는 강좌, 학생들을 대학에서의 진정한 공부로 초대하는 강좌,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학문 분야로 초대하는 강좌 등에서 교수들의 가르치는 능력 향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계약직 강의 조교(Teaching Assistant)에 지급되는 재원을 더 경험 많은 강사들을(instructors) 채용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바란다.

5) 신입생-첫해-경험의 제 측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전체 학생을 구성하는 하위 학생 집단들(subsets)이 하버드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6) 비공식적인 학교사회생활(informal social life)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입생 기숙사에 더 많은 공동의 공간을 만들고, 기존의 공간들은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7) 상급 학년용 기숙사처럼, 신입생 기숙사와 Freshman Yard에서도 주거 밀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8) 기숙사 담당 학장을 한 사람 더 늘려 업무량을 처리 가능한 정도로 줄이고, 학생들과 기숙사 조교를 보다 잘 만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대 조교의 비율을 상급생 거주시설 수준으로 낮추고, 보다 적절한 기숙사조교 거주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9) 학사일정을 개혁(calendar reform)할 경우, 그 영향이 매우 크므로 현재의 사전-오리엔테이션(pre-orientation)을 검토하고, 이것이 정규 학사일정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연결 가능성 또한 검토해야 한다.

10) Freshman Yard에 학교사회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Freshman Union이 없어진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신입생 학생회관을 발전시켜야 한다. 신입생을 위한 식당의 혁신을 계획할 때, 최소한 식사와 회합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신입생-첫해-경험이 한 학생의 궁극적인 학교 전체 생활에의 참여(engagement)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은 위원회가 연구를 진행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하버드의 교육은 다양한 차원을 갖고 있다: 학생조직, 행위예술(performing arts), 운동, 기숙사에서 의 삶, 이 모든 것들이 학부학생들의 지적, 윤리적, 개인적 성장에 공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경험은 가장 중심이 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첫 부분이 학문적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은 당연하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변화 추구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위원회는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에서 확인된 신입생-첫해-경험의 모든 측면들-학문, 기숙사, 정규 교과 외, 학교 내 사회-이 중요하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어떤 주제들-유대감 같은 것-은 영역 구분을 넘어 고려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리더십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총장과 문리대학장, 학부대학장은 학부생의 경험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입생-첫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하고, 그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

학부대학장은 신입생-첫해의 학문적 경험에 대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제 많은 부처 및 대학들이 글쓰기 혹은 외국어 필수이수 같은 학문적 측면들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적 협조 체제 혹은 핵심적 원칙 같은 것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 학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제공한 것들의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그들의 유효성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고, 다른 대학의 “최고 프로그램들”과 나란히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제공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학생들이 자기 신뢰를 발전시키도록,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학생들이 자신감과 자기주도성을 고취하도록 하는 것이 하버드 학부대학 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입생 담당 학장을 위해 학생과 교수, 행정가들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 이 글은 하버드 대학교 문리대학(Faculty of Arts and Sciences, Harvard University)에서 작성한 'Report of the First-Year Experience Planning Committee'를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http://www.college.harvard.edu/deans_office/firstYearExperienceReport.pdf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는 원문의 내용을 병기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번역 및 요약 : 남승완(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연구원)

감수: 김지현(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연구교수)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